



## 미래지향적이고 사이버틱한 분위기 컨셉

### 제 7회 한국 팩스타 대학생 패키지디자인 공모전 대상수상

김 세 하 · 차 형 준 /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4학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패키지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근래 수많은 동종 제품의 양산으로 상품의 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졌다. 같은 질의 상품이라면 패키지디자인이 눈에 띄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특히 요즘 신세대들은 같은 가격이면 포장지가 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업계, 관련 단체 등에서 패키지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하여 패키지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와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팩스타(PACKSTAR) 시상 제도는 매년 각 기업의 우수 패키지디자인 상품을 선정하고, 대학생 패키지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업계와 학계 모두에게 우리나라 패키지디자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PACKSTAR 2000 행사에서 대학생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남서울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4학년 차형준 군과 김세하 양은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작품을 함께 해나간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서로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대상을 수상한 차형준 군과 김세하 양의 작품은 상품명 ‘Line’ 화장품으로 컨셉을 설정하여 20~30대 도시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련되고 미래 지향적인 작품으로 ‘Line’이라는 상품명대로 병 모양의 선 윤곽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둔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패키지디자인공모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가 화장품 병 디자인이다.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는 디자인 소재를 가지고 대상까지 획득할 수 있었던 데는 남다른 노력과 정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아이템 구상단계에서 사이버틱한 분위기의

미래 분위기가 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분위기의 소재로 유리를 택했다.

유리의 투명함으로 사이버틱한 분위기를 내는 전략이었다. 차형준 군은 컨셉에 맞는 유리 소재를 찾고, 김세하 양은 제품 디자인을 하고 제작에 들어갔다.

제작과정에서 무엇보다 선(line)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하다 보니 윤곽을 살리기 위한 각도조절이 가장 힘들었다는 두 학생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Line'이라는 브랜드명을 부각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학생은 작품 제작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선 윤곽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폐기시키고 다시 제작할 때"라 지적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만든 작품인데 다시 제작해야 한다니, 부족하지만 출품할까 망설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제작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무척 기쁩니다"라는 말에서 작품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김세하 양은 패키지디자인에 대해 "패키지 디자인 분야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을 수많은 사람들이 구입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패키지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이 분

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차형준 군은 현재 현대자동차연구소 디자인 기획팀에 근무하며 학교생활을 병행해 나가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번 대상 수상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현대자동차 디자인연구소 소장인 박종서 전무와 팀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남다른 고마움을 전했다.

차형준 군과 김세하 양은 학교에 작품을 제작하면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은 한승문 지도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승문 교수는 이번에 대상 수상자 및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여 지도교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었고, 앞으로 디자인분야에서 활동하는데 큰 자신감을 획득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이들이 앞으로 패키지디자인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ko]

박기진 기자